



황주호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초청 제191차 원자력계 조찬강연회 개최



황주호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원자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한국원자력산업회회가 주최한 제191차 원자력계 조찬강연회가 5월 26일(금) 오전 7시 30분 웨라톤 서울 팰라스 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원자력계 인사 130여명이 참석한 이번 조찬강연회에서 황주호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원자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황주호 회장은 강연에서 '어쩌다 원자력', '원자력 보듬기와 때리기', '독일과 영국의 에너지 전환', '떠난 마음 달래기' 등의 소주제를 통해 신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원자력의 위치와 국민과의 소통에 대해 강연을 했다.

한국원자력산업회회는 국내외 원자력산업 관련 현안 문제나 관심사항을 주제로 한 원자력계 조찬강연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제12회 중국국제원자력산업전에서 한국 원자력 적극 홍보



중국원자력산업전시회(CIENPI)의 한국원자력전시관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2회 중국국제원자력산업전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on Nuclear Power Industry, CIENPI)에서 유럽형 한국 원전인 EU-APR과 원전 전(全)주기를 아우르는 원자력 기술 관련 내용을 전시해 각국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KPS(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원자력연료(주), 두산중공업(주) 등 국내 5개 원자력 기업이 함께 '한국원자력관'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IAEA, OECD-NEA 등 국제기구 관계자와 행사 개최국인 중국을 비롯한 체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주요국 원자력 관계자들에게 한국 원자력산업의 우수 기술을 알린 것은 물론 중국 원자력 산업계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